

당뇨인이 받아야 할 정기검사

당뇨병성 합병증은 흔히 혈관합병증이라고도 불리며 눈, 신장, 신경 등 여러 곳에서 합병증이 나타난다. 따라서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철저한 혈당조절을 통해 병이 진행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당뇨병환자들에게 정기검진의 목적은 합병증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미한 증상이라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합병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기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뇨병환자에게 필요한 정기검진의 종류 및 시기에 대하여 소개한다.

| 검사기간 | 검사종류 | 기타 |
|----------|-------|----------------|
| 수시로 검사 | 혈당검사 | |
| | 혈압검사 | |
| 2~3개월 마다 | 당화혈색소 | 혈액검사 |
| 해 마다 | 간기능 | 간효소 수치 검사 |
| | 지질검사 |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
| | 눈검사 | 안저검사 |
| | 신장기능 | 혈액검사 소변검사 |
| | 심장기능 | 심전도 및 흉부 X-ray |
| | 족부검사 | 혈관, 신경검사 |

수시로 해야 할 검사

혈당검사

정기적으로 자신의 혈당을 측정해 봄으로써 혈당관리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혈압검사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고혈압이 발생하기 쉬우며 동맥경화증이 더 심해지고 합병증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혈압을 엄격하게 조절해야 한다. (정상 혈압은 120/80mmHg)

2~3개월마다 해야 할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본 검사를 통하여 최근 2~3개월간의 혈당조절의 평균을 알 수 있다. 정기적인 검사에서 당화

혈색소 수치가 7% 이하(정상인은 6% 내외)로 유지되어야만 혈당조절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매년 실시해야 할 검사

간기능 검사

많은 당뇨병인들이 지방간이 동반되므로 매년 정기검진에서 간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질 검사

당뇨인은 심부전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심장병이나 동맥경화증이 일반인보다 높다. 이는 혈당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중요한 원인 인자로 보이는데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혈청 지질 검사가 필요하다. 결과가 정상 범위에 있으면 6개월 내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나 정상보다 높을 경우 최소 3개월 간격으로 검사하여 수치를 정상으로 낮추도록 해야 한다.

안과 검진(안저검사)

당뇨병이 10년 이상이 되면 망막증 및 백내장이 올 확률이 높다. 망막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형광안저 조영술을 받는다.

신장기능 검사

단백뇨검사를 통해 신장기능 이상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조기진단을 통해 합병증의 진행을 지연 또는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당뇨병을 진단 받게 되면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실시하여 신장기능을 평가해야 한다.

심전도 및 흉부X선 검사

허혈성 심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진단법으로 심전도검사를 시행하며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족부) 검사

발은 우리 신체의 하지부분이며 당뇨병에게서 족부병변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발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검사는 일년에 한번씩 전반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